

화순 유마사 보안회, 화순전남대병원 후원금 전달



화순 유마사(주지 일장스님) 신도들로 구성된 불교자원봉사자 모임인 '보안회'는 최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600만원의 후원금을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정신)에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형편이 어려운 암환자 12명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광주FC U-12, 아프리카 어린이 위한 축구화 전달



광주FC U-12(감독 박성홍)는 최근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유니폼과 축구화 등 후원품을 사단법인 코코넛(대표 박장용)에 전달했다. <코코넛 제공>

광주서구진로직업센터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광주서구진로직업센터지원센터(센터장 임형순)는 초·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을 실시했다. <서구진로직업지원센터 제공>

광주대 조리학과 국제요리 경연대회 최우수상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호텔외식조리학과가 최근 열린 '2018 대한민국 국제요리 & 제과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과 금상, 동상을 수상했다. <광주대 제공>

“머리 기르기 불편했지만 기부 기쁨이 더 컸어요”

소아암 환자우해 머리카락 기부 여수 도원초 안진아-제연 자매

지난해 TV 프로그램 보고 기부 결심 1년 30cm 길러 백혈병소아암협회 보내

소아암 환자를 위해 1년간 머리카락을 길러 기부한 초등학생 자매가 있다.

“오늘의 뿌듯한 일. 1년간 기른 머리카락을 잘랐다. 소아암에 걸린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할 거다.”

여수 도원초등학교 5학년 안진아 양이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쓴 일기의 내용 중 일부이다. 안 양은 머리카락을 정성껏 담아 우체국 등기 편에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로 보냈다. 언니를 따라 머리카락을 기른 동생 제연(도원초 2년)양의 머리카락도 함께 담아 보냈다.

안양은 지난해 이맘때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린이가 소아암 환자를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어머니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도움과 허락을 구했다. “염색이나 파마를 한 번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지는 아직 한 적 없었나 되겠다. 머리카락을 25cm 이상 길러야 한다는데, 기를 수 있겠어?” 어머니 주혜미 씨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홈페이지에서 모발 기부 조건을 검색한 뒤, 1년간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지를 안 양에게 물었다.

그렇게 기르기 시작한 머리카락은 단발에서 1년간 30cm로 길어졌다. 머리카락이 무겁고 감고 난 뒤에는 잘 마르지도 않았지만 들어켜보면 그런 불편한 과정이 있어서 기부의 기쁨이 더 컸다고 안양은 말했다.



여수 도원초등학교 안진아·제연 양 자매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로부터 받은 모발기부증서를 들어 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여수도원초 제공>

소중히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 다시 짧은 머리가 됐으니 섭섭할 법도 했지만, 기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시원해서 좋다”고도 했다. 안양 자매는 머리카락을 접수한 협회에서 발급한 모발기부증서를 꺼내보며 흐뭇하게 웃곤 한다. 어머니 주 씨는 “가족끼리 추진한 기부

프로젝트가 알려져 민망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TV 프로그램을 보고 기부를 결심했듯이 다른 어린이들도 진아, 제연을 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기부 바이러스가 전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서예 체험장 외국인에 인기

“붓으로 글씨를 쓰는 서예 체험이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지는 몰랐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아이방에 걸어준다며 축제에 아이의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요청한 영국 관광객도 있었어요.”

진도에서 최근 나흘간 열린 제40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장에 유독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린 부스가 있었다. 한국서예협회 진도지부에서 준비한 서예 체험장이었다. <사진>

진도지부는 축제 기간동안 협회 회원과 진도군 서예동호회원을 열고 관광객들을 위한 서예 체험, 가훈 써주기도 병행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다. 바닷길 축제 첫번째 참여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축제에 쓴 가훈을 구입하려는 외국인들도 많았다. 행사 기간 중 서예가 이점숙 씨를 비롯한 광주지역 여성 서예가 7명이 부스를 찾아 가훈써주기 봉사에 참여하며 회원간 교류를 갖기도 했다.

강예심 서예협회 진도지부장은 “서예의 고장 진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축제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참여해 서예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 알림회’ 개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박병주)은 최근 양일간 3학년 학생들의 주관하에 ‘제37회 치과알림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치과 알림회는 전남대, 버스터미널(U-Square), 아시아 문화전당 나눔극장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됐다.

치과 알림회는 보건의 달을 기념해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치, 치주질환 및 구강 위생상태 등 구강의 일반관리와 치료방법 등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치아 꽃피는 미소

‘이’처럼 아름다운지’라는 슬로건 아래 양 치질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치태염색, 구강검진 및 TBI 교육, 구취 측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풍성하게 진행됐다.

제37회 치과알림회 회장인 최경서 학생은 “올바른 치과상식과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시민 여러분에게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 “구강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최용원 링크옵틱스 대표 모범중기인 대통령 표창

광(光)을 이용한 행노화 솔루션으로 첨단기술기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45호)에 지정된 (주)링크옵틱스(대표 최용원)가 최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모범중소기업인 포상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매년 5월 셋째주 중소기업주간을 기념해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

하는 행사다. 지난 2004년 설립된 광기반 의료기기 전문기업 (주)링크옵틱스는 저출력 광선조사기 벨라룩스(Bellalux) 출시를 통해 국내외 피부과 및 성형외과에 널리 알려진 기업으로, 피부 미백과 재생 분야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GIST 조수인 리뷰논문 SCI급 저널 게재

GIST(광주과학기술원)는 생명과학전공 4학년 조수인(지도교수 전창덕 교수)씨가 제1저자로 참여한 리뷰논문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저널인 'Journal of Leukocyte Biology'에 게재됐다고 21일 밝혔다.

리뷰 논문은 해당 분야의 최신 성과를 망라해 자신의 의견을 붙여 평가하는 것으로, 학부생이 SCI급 저널에 리뷰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SCI

급 논문은 학계에서 통용되는 연구자의 성과와 판단 기준의 하나다. 조씨는 국가 지정 리더십 프로그램의 장의연구센터(면역신호제어 연구센터)를 이끄는 전창덕 교수 연구팀의 학부 연구생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배경석(경주배서 광주중회회장)·김복희씨 장남 시절군 구순님씨 장녀 나희양=26일(토)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마루동 데일리 웨딩 컨벤션(2층) 오도도스홀.

동창회

▲재경 장흥 용산중학교 제 10회=26일(토) 오후 6시 삼육기(사당역 13번 출구)문의 010-2363-0124.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을 상담센터 무료상담=

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 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모집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 =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생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글,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

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부음

▲조삼한씨 별세 조규재·규중·규태씨 부친상 이재심·최주미·이은경씨 사부상

김육씨 배우자상=발인 22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화자씨 별세 이정성·정명·영심·영숙씨 모친상 이선씨 시모상 정상조·서재문씨 빙모상=발인 22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김윤호 님(남/79세) 子/子婦 : 김준봉, 규봉/무양순 女/婿 : 김금숙/문병오, 김혜리 孫 : 문경기, 현아, 일보람, 김도근, 이이든, 미루 未亡人 : 나기순 ●발 인 : 5월 22일 ●장 지 : 영월묘역	301호 故차영임 님(여/90세) 子 : 최인성, 인식 女/婿 : 최화영/박의재, 최영, 지영, 이연재 孫 : 최희중, 은진, 은선, 박현성, 영규, 김지선, 김일우, 이종우, 현지 ●발 인 : 5월 23일 ●장 지 : 영락공원
401호 故정관례 님(여/91세) 子/子婦 : 양동길, 동호/양은진 女/婿 : 양동순, 순/김종효, 태순/김원주 ●발 인 : 5월 23일 ●장 지 : 화순이랑	●연락처 : 227-4381 ●연락처 : 227-4382 ●연락처 : 227-4383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
 대표이사 구재길